

# “5·18은 의거다” 광주 고교생 작문집 공개

### 항쟁 8개월 지나 석산고 학생 186명이 쓴 작문 엮어 “피의 투쟁”, “정당한 민주적 권리 주장” 항쟁 재평가 “5·18 이후 최단시일 내 이뤄진 문학 작품·문화유산” 작품집 받은 동료교사가 1987년 광주대교구에 기증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항쟁 8개월 뒤 쓴 작문집이 39년 만에 공개된다.

작문집에는 정권을 부당하게 찬탈하고 시민을 억압한 신군부에 맞선 항쟁의 의의와 정당성을 역설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5·18기록관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오는 3월 ‘오월, 그날의 청소년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1981년 광주 석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 186명이 국어 과제로 제출한 ‘5·18 작문’ 원문이 공개된다.

1981년 2월 당시 석산고 1학년생 서충렬씨는 ‘지난 이 사건을 사태라기보다는 의거라고 칭하고 싶다. 이 일은 오랜 독재하에서 거의 모든 자유를 통제된 지식인, 학생층의 자유를 향한 거국적인 힘의 발산이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위군들이 자동차로 시위를 할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리로 물러나와 음료수·김밥·달걀·과일 등을 공급했고 또 후원했다’며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의도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의 정신이 뭉쳐진 것’이라고 항쟁 성격을 규정했다.

정부에 대해선 ‘정부가 이를 일부 불순분자의 책동이라고 했으나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한 말이다’고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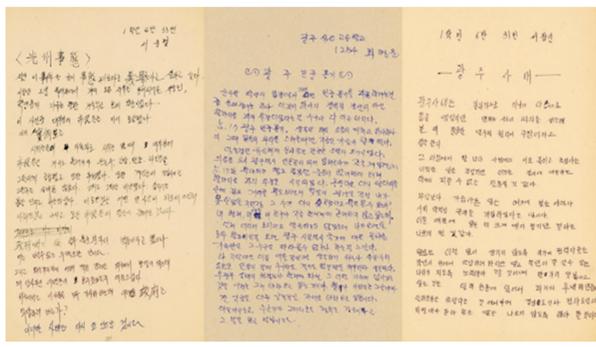
동급생이었던 최병문씨는 제출한 작문제목에 ‘광주 민중 봉기’라고 붙였다.

최씨는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장난이 아닌 한마디로 피의 투쟁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며 ‘억눌려 있던 유신 체제 붕괴 직전 전국은 소란의 도가니였다’고 썼다.

이어 ‘의로운 도시 광주 역시 선봉장이 돼 임해오다가 전국계엄령이 5월17일 확대되자 참모 참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한마디로 피의 투쟁은 시작됐다’고 서술했다.

1학년6반 학생이었던 서왕진씨는 5·18에 대해 ‘결과적으로 하나의 아픔으로 끝을 맺었지만 맨 처음 시도의 의의를 생각할 때 정당한 민주적 권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글에 옮겼다.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오는 3월 ‘오월, 그날의 청소년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1981년 광주 석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 186명이 국어 과제로 제출한 ‘5·18 작문’ 원문이 공개된다.

의 권력자들은 국민의 위에서 억압하려 하지만 말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개될 석산고 작문집은 1학년용 마무리하면서 숙제로 낸 학생들의 글을 엮은 것이다.

국어 교사가 학기말에 따로 낸 숙제로 국어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 응시나 작성 지침은 없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낸 글을 따로 서류 봉투에 담아 보관해왔다가 1981년 5월께 동료 교사에게 전달했다.

이런 건네 받은 교사는 민주화 유구가 절정에 이른 1987년에서야 작문집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기증했다. 5·18기록관은 항쟁 40주년을 맞아 지난 7월부터 작문집을 위탁 보관하고 있다.

전남대 NGO대학원 정호기 박사는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구성된 5·18 담론’ 발제문을 통해 ‘작문집은 유폐된 기록된 ‘유일본’이자 ‘진품’이며, 5·18이 끝난 뒤 가장 짧은 시일 내에 이뤄졌던 집단적 문학 작품이자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작문집에 대한 사실 고증이 필요하고 문학적 의의를 논하는 것은 무리지만, 시대의 담론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학술대회에선 1980년 당시 청소년으로서 항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최병문·서왕진씨와 이병영씨 등 생존자 6명도 참석, 헬기 사격 목격담 등 증언에 나섰다.

김미희기자

## ‘보조금 로비 명목’ 돈 받아 챙긴 60대 2명 벌금형

‘국회의원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B(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A씨에게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23일 국회의원 청탁 명목으로 지인 C씨에게 15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모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 거액의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해줄 테니 보조금을 받게 되면, 수익을 우리끼리 나누자. 부탁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침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 제도의 공정·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A·B씨가 2018년 11월 C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C씨 아내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대출받자’며 제공받은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 “먼지 날리잖아”... 출소 사흘 만에 벽돌 행패 40대 입건

출소 사흘 만에 시비가 붙은 동네 상인을 폭행하고 벽돌까지 던진 40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시비가 붙은 상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 동구 용산동 모 상점 앞에서 상인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벽돌까지 던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빗자루로 갖길을 쓸던 B씨에게 ‘먼지가 날린다. 물을 뿌리면서 청소하라’고 거세게 항의하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3차례 발로 걷어찬 데 이어 길가에 놓인 벽돌을 집어들어 B씨를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벽돌이 빗나가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 1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달 30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남 장흥서 코란도 전봇대 들이받아 운전자 숨져

전남 장흥에서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숨졌다.

3일 장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50분께 장흥군 장평면 한 도로에서 A(61)씨가 운전하는 코란도 차량이 전봇대를 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봇대 등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제주시 50대 남성 바다에 빠져 숨져...해경 조사

제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져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오전 7시49분께 제주시 구좌읍 신촌리 인근 해상에 50대 남성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급히 출동한 해경은 곧 해상에 요드된 자제로 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고, 이마 부분에서 타박상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 교차로서 신호 위반 차 따라가 ‘쿵’...억대 보험사기단

### 가해·피해자 역할 나눠 차량 2대로 고의 사고도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들이받거나 추돌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기단 30명이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교통 범죄수사팀은 3일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 영광과 광주 등지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들을 3차례

쫓아가 들이받거나 하면,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에 4~5명씩 탑승하고 있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를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통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무과실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들의 범행 대다수는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는 등의 고의 단독 사고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이들은 동네 선술배 또는 동창 사이로 타낸 보험·합의금을 생활·유혹비로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 먹는물 수질 검사 기관 7곳 지도점검

###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5일부터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분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주)산천환경연구원, (주)비른환경연구소,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명생명과학원(주) 등 7곳이다.

점검 항목은 수질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실험시설 ▲실험시설·기술인력 적정 배치 ▲시료채취·분석 절차 등이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